

# 함께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해집니다.



- 수혜자 중심의 One-Stop Total 사회공헌활동 -

## □ 개요

- 기관명 : 농촌 및 도시 소외계층(임실군 삼계면, 순창군 복흥면, 진안군 성수면 3개 농촌지역 및 전주시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960명
- 일 시 : 2019년 7월16일, 8월28일, 10월29일(3회) / 10:00 ~ 15:00  
2019년 11월5일 / 14:00 ~ 17:00
- 내 용 : 농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전북 기관 연합사회공헌 및 안전 점검활동과 도시 차상위계층 대상 에너지유관기관 연합 사회공헌 및 안전점검활동
- 참석자 : 전북지역본부 16인 및 32개 유관기관 620명(누적)
- 작성자 : 전북지역본부 장혜빈 대리

## □ 내용

- “서울 종로의 한 복지기관도 기업의 김장봉사행사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업 김장봉사행사는 자원봉사활동이라기보다 기업에서 단체사진 찍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김장봉사행사를 치르면서 겪은 경험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기관 관계자는 “겪어보니 기업에서 하루 날 잡아 벌이는 행사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 “그날 하루 김치 버무리기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게 대부분” 이라고 말했다. 고위임원에 대한 과잉 의전도 봉사활동 명목으로 찾아온 기업들이 자주 벌이는 민폐 중 하나다. 연말이나 노인의 날에 복지시설을 찾는 기업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사진을 찍었을

때 좋은 그림' 이 나오게 하라는 것이다.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복지시설 측에 예컨대 '이번 행사에 회장님이 참석하니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100명 이상 모아달라' 고 요구한다. 행사 장소와 시간 역시 회장님의 일정과 동선에 맞춰 진행된다.”

이 내용은 2018년 12월 우리나라 유명 주간지에 나온 “생색내기용 기업 사회공헌활동”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공헌을 받으시는 수혜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가끔씩 주객이 전도되어 수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부르면 수시로 나오셔서 사진찍고, 악수하고, 고마운 표정을 지어야합니다. 특히 연말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관들이 찾아와서 생색내고 사진만 찍고 후다닥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단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기관별 개별적 일회성 생색내기용 사회공헌활동과 대상선정 및 사회공헌활동효과 등의 한계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소외계층 등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물품전달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기관들은 생각과 행동을 바꿨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One-Stop Total 사회공헌활동” 전북에 있는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봉사기관 등 27개 기관이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한번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한 번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높은 양반들과 기념촬영 그런 것 도 없습니다. 각 기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묵묵히 재능을 기부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감사님도 한번 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사님이라는 거 모르죠.

봉사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혜자를 정하는 것도 힘들고 특히, 농촌이든 도시든 요즘은 낮에는 비어있는 집들이 많고 세상에 흉악해져서 함부로 집을 방문하다가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전북지역 공공기관·기업연합 봉사단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아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목사님 등 그 마을을 잘 아시는 분을 대동하고 사전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농촌마을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봉사활동과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면으로 인사도 나누면서 활동내용에 대해 말씀도 드리고 시간약속도 미리 정합니다. 우리가 좀 더 움직이고 고생하면 수혜자들이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드디어 봉사활동 당일날.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은 마을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 오시거나, 면사무소 등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오시기 시작합니다. 면사무소에 마련된 부스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치과검진 및 치료(원광대 치대), 한방검진(효사랑 요양병원), 모세혈관 및 동맥경화 검사(한국건강관리협회), 틀니세척(원광대 치과병원), 금융거래상담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금융감독원), 신용회복 및 금융상담(신용회복위원회), 천연 진드기기피제(전북 자연환경연수원), 금연관리 및 상담(전북금연지원센터), 가스안전체험교실(한국가스안전공사), 이밖에도 네일아트, 스마트폰 활용교육, 보조기기 소독..... 등 등 다양한 부스에서 어르신들이 체험하고 상담하고 진료를 받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는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One-Stop Total 사회 공헌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되니 어르신들은 시간도 아끼고 번거롭지 않게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통신선 정리 및 효도전화기 설치(KT), 가스안전점검 및 자동차단밸브 설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전기안전공사), 욕실 미끄럼방지 안전매트 설치(전북경제통상진흥원), 투척용 소화기 설치(KT) 등 각 기관 장점을 살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물론 빈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병원진료를 가지거나 아니면 면사무소 부스에 단체로 가서서... 하지만 이미 사전에 미리 방문 하여 파악한 곳이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올해 많은 고민 끝에 충전식 무선LED센서등을 제공 설치 하였습니다. 기존의 유선센서등은 특히 농가주택같은 경우는 설치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르신들이 전기세 걱정에 설치하고도 꺼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형 충전식LED센서등의 경우 자석 부착식으로 쇠붙이면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대문이나 화장실, 창고, 현관, 부엌 냉장고 등 자석이 붙은 곳에는 어디든 선없이 간편하게 부착하고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석이 안붙으면?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강력양면테이프를 딱 하고 붙이면 딱하니 붙습니다. 그리고 불이 약해지면 떼어서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하면 끝... 작지만 편하고 밝습니다. 가구당 한 개는 필요한 곳에 부착하고 한 개는 여분으로 드립니다. 급하면 손전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같이 봉사활동을 오신 다른 기관 봉사자들도 신기해하며 하나 줄 수 없냐고 부탁하십니다만 당연히 봉사자들에게는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고마워하면서 계속 말을 거십니다.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 얘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이야기, 아마도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운가 봅니다. 그리고 수박도 가져다 주시고, 키우는 복숭아도 씻어 줍니다. 먹다보면 배부른데 주시는 걸 거절하는 게 힘들어 계속 먹게 됩니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너무 아끼다 보니 위험한 경우가 많아 전기요금에 생각보다 많이 만나오니 필요한 전기는 쓰시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설치를 다 끝내고 나오면 연신 고맙다고 미안할 정도로 계속 인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다니다보면 어느새 배는 고파지고 밥먹을

시간이 됩니다. 서둘러 면사무소로 가면 행복에너지밥차에서 모락모락 맛있는 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날은 삼계탕, 어떤날은 육개장..... 땀흘리고 먹는 점심은 메뉴가 무엇이든 꿀맛입니다. 이시간 만큼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어우러져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룻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부러진 허리와 검게 그을리시고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집에 있는 수박, 과수원의 복숭아 등을 한사코 내미시던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보면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해진다는, 작은 물들이 모여 큰강과 큰바다를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가 바로 우리들 곁에 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의 행복이나 만족이 아닌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편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p>언론보도 및 전라북도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인증패</p>		

- 에필로그

공공·기관기업 연합사회공헌활동에 함께 하시려면..

담당기관 :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처 070-4739-7996

홈페이지 : [www.jbvolo.or.kr](http://www.jbvolo.or.kr)

- 참고사항

- 주민참여유도 : 최근 늘어난 강력범죄로 외부인 경계가 심하고 당일날 비어있는집이 많아 행사 당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우므로, 미리 현장방문 실시를 통해 사전안내와 일정 등 조율을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 수혜자 선정 :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들과 관내 면사무소, 마을이장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부터 아이템 발굴, 물품·재능기부까지 연합 활동 추진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사회공헌은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활동효과도 한정적이고 수혜받는 곳에서도 기관별로 한번씩 찾아와서 귀찮아합니다. 여러 기관이 연합해서 한번에 방문하여 도와주면 효과도 크고 받는 쪽에서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사회공헌도 함께하면 더 행복해집니다.